



1930년대, 이 시기 문학은 근대문학의 발전이 두드러진다.

민족말살에 항거한 투쟁의 시대로 이 당시 문인들은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통해 근대문학의 성숙을 이뤄낸다.

이 시기에 충북 대표문인으로 향수의 정지용과
고향상실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오장환 시인이 있다.

고향 상실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시인, 오장환

1930년대 우리 시단에서 '시의 황제'라는 찬사를 들었던 오장환 시인

그는 휘문고등보통학교 시절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하여, 1933년 2월에 학교문예지 「휘문」에 「아침」과 화염, 1933년 11월에는 『조선문학』에 「목욕간」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이후 『시인부락』, 『낭만』, 『자오선』 등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해방 후 조선문학가동맹에 참가하여 활동하였으며, 1947년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테러가 자행되어 부상을 입고 북으로 피하게 된다. 그 후, 남포 적십자병원과 모스크바 볼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되어 한국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01 출생과 어린시절 : 1908 -1930 / 1-13세

고향 상실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시인, 오장환

오장환은 1908년에 충청북도 보은군의 산골 마을 회인에서 아버지 오학근과 어머니 한학수 사이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의 오장환은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에 귀염성 있고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회인 공립보통학교 입학 후 안성 공립보통학교로 전학하여 그곳에서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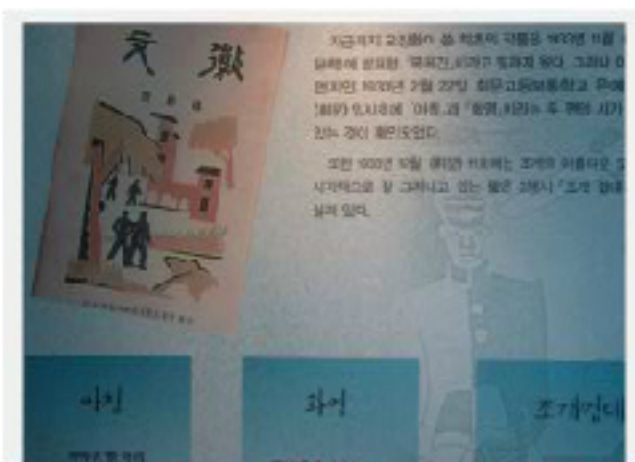


오장환의 출생

충청북도 보은군의 산골마을 회인

02 천재시인에서 문단의 새로운 왕으로의 등극 : 1931-1944 / 14-27세

1931년 4월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오장환은 이곳에서 정지용 시인을 만나 시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문예반 활동을 하며 『휘문』이라는 교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 1933년 2월 22일에 발간된 『휘문』 임시호에는 오장환의 첫 작품인 「아침」과 「화염」이라는 두 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후 오장환은 『시인부락』, 『낭만』, 『자오선』 등의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 시기에 발표한 시집 『성벽』과 『헌사』를 통하여 '시단의 새로운 왕이 나왔다'는 찬사를 듣게 된다. 그는 일제 강점 말기의 폭압적 상황에서도 절필(絶筆)하지 않으면서, 친일적인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휘문고보 시절

1933년 2월 22일에 발간된 『휘문』 임시호

03 해방과 분단 이후의 문학활동 : 1945-1951 / 28-34세

병상에서 해방을 맞이한 오장환은 「병든 서울」을 통하여 해방의 기쁨을 감격적으로 노래했다. 「병든 서울」은 해방기념조선문학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시 「석탑의 노래」는 1947년 중학교 5·6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작품으로서 불행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을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삶이 치열하게 그려져 있다. 그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던 시기에 전국을 돌며 몸을 아끼지 않는 활발한 문화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테러가 자행되면서 몸을 심하게 다치고 치료를 위해 북으로 가게 된다. 이후 오장환은 남포와 모스크바에서 지병을 치료하며 소련 기행 시집 『붉은 기』를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한국전쟁 중에 사망하였다.



오장환의 문학적 성장

해방 후 발표한 「병든 서울」과 소련 기행 시집 「붉은 기」

04 오장환의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

광복 후 40여 년간 논의조차 불가능했던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루어졌던 1988년 이후로 오장환 문학 세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비롯하여 전집, 평론, 시집 등이 발간되었으며, 초창기의 시와 동시, 장편시 등의 자료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었다.

제1회 '오장환 문학제'가 1996년도에 개최되어 현재까지 매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 오장환의 생가 복원 및 문학관 건립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5길 12 중양리 140 일원에 오장환 문학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이다.



오장환 생가 복원 및 문학관

충북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5길 12 중양리 140 일원에 오장환 문학관이 건립되어 운영 중

작가연보

- 1908** 5월 15일에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40번지에서 오학근(吳學根)과 그의 첩 한학수(韓學洙) 사이의 3남 2녀 중 2남으로 태어남.
- 1924** 4월 1일에 회인공립보통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으나 그 전에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움.
- 1927** 4월 30일에 회인공립보통학교를 자퇴하고 5월 2일에 안성공립보통학교 4학년으로 전학을 하여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서리 314번지에 거주.
- 1929** 아버지의 본처인 이민석이 사망.
- 1930** 3월 24일에 안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 후 중등학교 입학시험에 실패하여 잠시 고향에 머무르다가 서울의 중동(中東)학교 속성과에 입학.
- 1931** 3월에 중등학교 속성과를 마치고 4월 1일에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고 5월 5일에 어머니 한학수가 호적에 재혼으로 신고 되면서 본처 소생으로 바뀜.
- 1933** 2월 13일부터 3월 말까지 수업료를 못 내어 정학 처분을 받았고 11월에 첫 시 「목욕간」을 『조선문학』에 발표.
- 1935** 1월 26일에 동경 유학을 위해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자퇴하고 4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지산(智山)중학교에 재학.
- 1936** 3월에 지산중학교를 수료하였고, 8월 29일에는 서울 종로구 윤니정24번지로 호적을 옮김. 『시인부락』과 『낭만』동인으로 참여하였다.
- 1937** 4월에 일본 메이지(明治)대학 전문부 문과 문예과 별과에 입학 후 『자오선』동인으로 활동하였고, 8월에 첫 시집 『성벽』을 풍림사에서 간행됨. 이 시집은 100부 한정판으로 자비 출판.

작가연보

- 1938** 3월에 메이지대학 전문부를 중퇴하고 귀국하였고 아버지 오학근은 7월 22일에 종로구 운니정 24번지 자택에서 사망. 부친 사망 이후 종로구 관훈정에서 남만서방(南蠻書房)을 경영.
- 1939** 7월에 두 번째 시집 『헌사』를 남만서방에서 출판.
- 1940** 일본에서 사자업(寫字業)을 하였는데 이 해에 중국 등지를 여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확인하기 어려움. 운니정을 떠나 정릉 입구의 돈암정 105번지로 이사를 함.
- 1945** 신장병으로 입원하고 있던 중에 해방을 맞이함.
- 1946**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여 5월에 번역 시집 『에세닌 시집』을 동향사(動向社)에서 간행하고, 7월에는 세 번째 시집 『병든 서울』을 정음사에서 발행.
- 1월에 첫 시집 『성벽의 재판』을 아문각(雅文閣)에서 출판하였고, 6월에는 네 번째 시집 『나 사는 곳』을 헌문사(獻文社)에서 발행. 2월에 경기도 강화군 강화면 신문리(新門里) 출신의 장정인(張正仁)과 결혼하였고, 12월경에 월북.
- 1948** 연말에 신장병 치료를 위해 소련의 모스크바로 가서 이듬해 여름에 귀국.
- 1950** 5월에 제5시집인 소련 기행시집 『붉은 기』를 출간.
- 1951** 지병인 신장병이 도져서 사망.